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표어: 그 한사람, 그 예배자 (요한복음 4:24)
- ◎ 대심방: 2012년 대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6(주일) 베트남: 김동수 민선희 집사
- ◎ 감사: 밀알 장애우들을 섬겨주신 성도와 오늘 식사 준비해주신 바누아투 공동체에 감사드립니다.
- ◎ 열심: 각 공동체 예배와 선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모임: 다음주 1부 예배 후에 바자회 준비를 위한 각 남선교회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 기도: 동성 결혼 반대를 위한 연합 중보기도회
주관: 오클랜드 한인 교회 협의회
일시 및 장소: 2012. 8. 26 주일 저녁 7시 오클랜드 순복음 교회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월례회: 4남(52년생 이후), 1여(결혼-66년생) 선교회 월례회가 친교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8월 새벽 기도회 본문

3일: 누가복음 9:18-27 신앙고백과 십자가를 향한 순종 10일: 누가복음 11:1-13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17일: 누가복음 12:35-48 깨어있는 신실한 종은 복됩니다 24일: 누가복음 14:25-35 누가 침된 제자입니까?
31일: 누가복음 17:22-37 데려감과 버려둠으로 구분되는 그날

갈보리
교회가
돕는
선교지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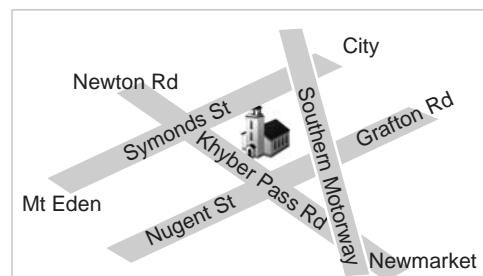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주일2부예배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종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밀알장애인 봉사

오시는 길



2012년 8월 26일

14권 35호

교회창립 1999/07/14

www.calvary.org.nz



2012 그 날 사람 그 예배자 (요4:24)

그래, 교회는 이래야 해

어느 교회에 노숙자들이 한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교회는 당회를 열고 찾아오는 노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한 끝에 매일 점심을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온 한 노숙자가 “그래 교회는 이래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식사를 대접하는 곳일까요? 틀렸습니다. 교회는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통찰력을 보여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인지, 보람인지 육의 눈을 가지고 물질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헤밍웨이는 입에 엽총을 물고 자살을 하면서 “이 의미 없는 인생의 행진을 접는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수많은 독자의 가슴에 감동을 주었던 헤밍웨이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성공과 행복을 깨닫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노벨상을 받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어느 한 곳에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두지 못해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동시에,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무엇이 성공이고, 보람인지를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이 교회 공동체라는 터 위에 세워져 있기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말하며, 어떻게 사는가를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저들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거울인 우리 앞에서 저들이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인생의 의미를 통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거울이 된다는 것은 마냥 칭찬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단 하나뿐인 인생이 내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영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역시 때로는 현실과 영적 세계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인생의 성공인지, 행복이요, 보람인지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성공이 소유하고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영적 세계를 바라고 소망하는 데 있음을 지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베나드 쇼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죽어가며 말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 - 369-5077 Ph: 09-475-6312 PO Box 8298 Symonds Street Auckland 1150

주일 1부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 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시편 148:1-4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 찬송	64장
※ 성시교독	71. 이사야 55장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59장
대표기도	박일영 장로
성경봉독	사도행전 10:44-48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찬송	이태한 목사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 응답송	살아 계신 주(1,3절)
※ 축도	이태한 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9월 교회일정

탁구대회:
9월 22일 (토)

항촌 직분자(시무) 연설회의:
9월 29일 (토)

성찬주일:
9월 30일 (주일)

◎ 9월 예배봉사자

예배안내:
추미선/이경자

새신자 안내:
심경순/김광자

주차안내:
양봉욱/민광호

주방봉사
한상순/김윤숙/장태옥/
원미경/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기도: 박제용 장로
다음 주일 1부: 김영길 장로
다음 주일 2부: 김정민 집사
8월 29일 수요기도: 이정인 집사
8월 29일 애찬기도: 손조훈 집사
9월 9일 1부: 현석호 장로
9월 9일 2부: 방명아 집사

금주의 기도제목

1. 국내

(1)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놓으신 가정과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자신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길, 그 결혼의 신성한 제도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이 땅에 지속되고 보호되도록.

(2)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신성한 결혼제도를 바꾸려는 죄악을 용서해주시고 저희의 회개와 간구를 들어주사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NZ 교회들에 지혜를 주셔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낼 수 있도록.

2. 교회

(1) 공동체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성도들간의 아름다운 교제로 믿음이 더 성숙해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이 주신 직분에 성실히 충성을 다하도록.

(2)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성도들에게 합당한 일자리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있도록, 영, 육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협통함이 있도록. 삶의 전 영역에 주 되심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3) 성전 건물 구입이 은혜 중에 이루어져 잘 준비된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교역자들과 항존 직분자들이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도록.

HELP IN TIME OF NEED

우리의 삶 속에서 믿고 의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위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Courage in Time of Fear: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가 필요하신가요?

Hebrews 13:5-6 [히브리서 13:5-6]

Stay away from the love of money;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For God has aid, "I will never fail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That is why we can say with confidence, "The Lord is my helper, so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us?"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돋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 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니라.

- 경덕현 집사 제공